

2장 벤야민의 유년시절과 사유방식의 형성

◆1교시: 유년의 기억과 사회에 저항하는 두 가지 방식

▲유년, 기억, 과거

제가 베를린의 유년시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벤야민 사유의 좀... 독특성을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년을 다루는 이제 그러한 작가들은 상당히 많죠. 유년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뭐 문학적 그런 테마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마르셀 프루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길 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서구 문학에서 유년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는 굉장히 다양한 변주를 거치면서 얘기되어 오고,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과연 유년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강의도 사실은 한번 해볼 만 한 겁니다.

▲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가 말하는 유년

그래서 우리가 유년 즉 어린 시절 하면, 어린 시절이 없는 사람은 없죠. 없는데, 그 유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뭐 이런 걸로 단순히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심층적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유년에 대해, 유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불란서의 그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리오타르가 쓴 책 중에 『유년읽기』라고 하는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리오타르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유년의 정의는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언어를 배우기 이전 상태다, 그래서 그냥 어린 시절이 아니라, 엄중한 철학적 의미에서의 유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이전 상태가 이제 그 유년인데, 바로 그 유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만일 유년을 그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 벤야민이 말하는 유년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어떤 삶의 한 그런 시기, 혹은 영역을 기억, 그것이 기억이든 아니면 문학화이든,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즉 언어로 접근해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게 문제시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유년이라고 하는 것에, 벤야민의 경우 유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이 문제화되고, 기억이 문제될 때 그 대상은 바로 과거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벤야민의 그 역사철학적인 측면에서 혹은 벤야민 사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는 이 과거라고 하는 개념, 오늘날 뭐 전부 미래만 얘기하지 사실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얘길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의식 그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시간, 어떤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한 시대의 풍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겠지만, 다른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바로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 벤야민의 유년시절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 기억작업에 대해

벤야민이 베를린의 유년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단순히 아주 그 유복한 어떤 부르주아의 상류가정에서 본인이 꿈꾸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벤야민 사유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고 있는 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나,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꿈꾼다는 건 뭐냐, 라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해서 벤야민은 특이하게 사실 그 베를린의 유년시절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텍스트에서 목적하는 바 중의 하나는 바로 벤야민 사유에서 제가 아까 중심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뭐라고 우리가 접근해가기 힘든 리오타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언어로 접근해가기 힘든 어떤 부분, 어떤 특수한 영역이 있는데, 그 특수한 영역을 바로 에 벤야민이 그 지칭하기 위한 의도도 벤야민의 그 유년시절에 대한 기억작업에 있습니다.

▲ 서부에 갇혀 지냈던 벤야민의 유년시절 그리고 욕구의 생성

예컨대 벤야민이 유년시절에 대한 기억들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오지만 그 거지와 창녀 같은 그러한 텍스트를 보게 되면, 바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를린의 서부지역에서만 갇혀 살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본인은 서부지역에서만 갇혀 살면서, 물론 엄마 아빠가,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동부지역이라고 하는 게토 영역으로 아이가 건너가지 못하게끔 이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금지된 영역인데, 그 동부 영역은, 그 경계 이탈을 이제 못하고 있는데, 벤야민이 그 애길 하면서 나는 서부지역에서만 늘 갇혀 살면서 한편으로는 늘 동부 쪽과 맞닿아 있는 그 경계를 한 번 넘어가고 싶은 욕구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욕구를 벤야민은 성욕, 섹슈얼리티의 문제하고 연관을 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벤야민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나는 서부지역에서만 늘 갇혀 있었기 때문에 늘 동부지역으로 못 건너가게 하는 그러한 그 타부에 대해서 늘 저항을 하고 싶었다’ 라고 얘기

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복한 부르주아 그 가정에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소위 부르주아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 제도로부터 이탈해보고 싶은, 그러한 그 일종의 욕구죠. 그 욕구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욕구를 자기가 해결하는, 그 한 때는 자기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그만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글에서 어떻게 자기가 썼었냐 하면, 내가 그 주인공을 하나 등장시켰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이제 팜플렛을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사람이었다.

▲ 사회에 저항하는 첫 번째 방식: 팜플렛과 자본주의

길거리에 가다보면 우리에게 그 종이 한 장씩 주고, 그때그때마다 좀 받으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 되는 것 같더라니까. 안 받으면 그 사람 더 오래 거기 서있어야 되는데 그냥 받고 어디 가서 버린다고 하더라도 받으면 그 사람들 또 고마워 할 거 같고, 어쨌든 간에 아마 그때도 가장 하층 그 직업이 아마 길거리에서 이 팜플렛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파사쥬 아르바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얘기 또 나옵니다만, 바로 이 팜플렛을 나누어주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계있습니까? 자본주의와 관계있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하나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을 때는 그 팜플렛을 나눠주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지 않았죠. 그죠? 팜플렛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광고이고, 광고는 바로 시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한 사회를 이렇게 그 주도하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벤야민 이 짧은 글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지만 어떤 글을 썼는데, 그 주인공을 팜플렛 나눠주는 주인공으로 남자로 삼았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벌써 어떤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그 어 컨텍스트들이 있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뭘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바로 그러면서 나는 그 팜플렛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무도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반항을 하는, 그니까 저항을 하는 한 방식으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팜플렛을 몽땅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는 것으로 끝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말을 통해서 벤야민 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소위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자신의 어떠한 그런 삶이나 아니면 자신의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얘기를 했지만, 그 저항하는 얘기가 결국은 아주 유치한 그런,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사보타주의 그런 방식밖에 취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뭐냐 하면 한 가난한 사람이 사회에 저항하는 방식이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는 어떤 작업을 바로 그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기, 그 포기해버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가난한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식으로밖에 취할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 경계 이탈의 경험과 사회에 저항하는 두 번째 방식

그 밖에 다른 방식의 저항방식을 취하면서 벤야민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날 나는(유대교들은 특별한 유대계 종교의 어떤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에 참가하고, 그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모이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일종의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있었는데, 엄마가 자기에게 저기 딴 동네 살고 있는 삼촌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죠. 벤야민은 바로 그 심부름을 받고 바로 그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길을 잃게 돼요. 거리에서 길 잃기. 거리에서 길을 잃다보니까, 우연스럽게 바로 경계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동부 쪽으로. 거기서 자기가 처음 발견한 게 바로 길거리에서 모피 외투를 입고 서있는 창녀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다. 거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나는 밤거리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즉 내가 결국은 의식에, 삼촌도 찾을 수 없고, 의식에 참가도 하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기분이 드냐 하면, 예라 될 대로 돼라,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적인 어떠한 그런 심정이 들었다. 그때 바로 자기는 이런 우연스럽게 경계를 이탈하게 됐고, 그 경계를 이탈했을 때 길거리에 서있는 한 여자를 발견을 했는데, 그 여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벤야민이 느낀 것은 내가 그 여자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을 때, 그 길거리에 서있는 여자가 애야 뭐 일로 와봐라 그랬을 때 벤야민이 한 얘기, 그 어린 벤야민이 이제 얘기했던 게 있겠죠. 뭐라고 한 마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길거리에 있는 여자에게 자기가 처음 말을 했을 때에 바로 자기는 최초의 어떤 그런 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성욕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라고 얘길 하면서 비추어서 얘길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마치 그 길거리에 있는 여자는 내가 말만 걸면, 금방 되살아나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여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 바로 내가 건들여 주기만 하면, 바로 내가 건들이는 바로 그것에 의해서 그 대상이, 전혀 새로운 어떠한 힘으로 나에게 건너오는 그러한 관계를 그때 자기는 감지를 했다. 그게 우리가 그걸 아주 섬세하게 벤야민의 글이나 벤야민의 사유방식, 그것을 섬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우연스럽게 거리의 여자를 만났을 때, 거리의 여자가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고, 말을 걸었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때, 바로 그 아이가 그 말을 통해가지고 건너오고 있는 일종의 유년의 에로스체험인데, 그 에로스 체험을 통해 이 아이가 무엇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을 통해서 벤야민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벤야민이 처음에는 소위 가부장적인 그런 유대계의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 깊이 갇혀있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한편으로는 거기서부터 내가

이탈하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동시에 내 몸속에서 나도 모르게 뛰쳐나오는 될 대로 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나중에 벤야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파괴적 성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파괴적 성격. 자기를 가두어놓고 있는, 혹은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영역을 스스로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유년 그 유년이란 그 기분에서 될 대로 돼라, 나도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러한 하나의 그런 파워, 자기의 상황을 뛰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파워가 한편으론 경험됐고, 그 경험과 동시에 그 파워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여자 속에 깊이 또한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건들어주기만 하면, 그 대상이, 대상이 바로 나에게 똑같은 파워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벤야민이 나중에 얘기하고 있는 correspondence 개념하고 맞는, 서로 마주치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 벤야민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양자간의, 그니까 그 아이와 창녀라고 비교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양자 간의 어떠한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만남의 관계, 혹은 마주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벤야민은 독일말로 얘기하면 크라프트지만, 어쨌든 간에 파워라고 하는 말로 얘기합니다.

힘이다. 바로 이 힘. 이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과 앞서 있었던 그 팜플렛을 나눠주는 남자가 사회에 저항하는, 그 남자에게서 사회에 저항하는, 저항하는 힘으로 발견했던 어떤 요소하고, 그리고 벤야민이 바로 창녀로부터 발견했던 사회의 저항하는 힘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소위 사회에서 억압받고, 우리가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 어떤 계급의, 계급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저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경험이 완전히 달랐다. 벤야민이 이 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바로 그 팜플렛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팜플렛을 쓰레기통에다가 내버리는 식으로 사회를,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그 방식은 바로 에... 그 프롤레타리아가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힘을, 말하자면 자기 폐쇄적으로 본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겨우 저항하는 방식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자기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종의 사보타주 박엔 안 된다면, 즉 사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무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데에서 그 소위 팜플렛의 남자를 통해서 벤야민이 겨우 그것만을 어린 시절에 보았다면, 창녀의 경험을 통해서도 나에게도 그리고 저 대상에게도 잠재적으로 있지만 그것이 일단 만나게 되면 엄청난 파워로서 하나의 폭발력을 지니는 그런 잠재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벤야민이.

벤야민은 끊임없이 이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재적인, 나중에 군중이나 이제 그런 개념에 들어가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잠재적인 그런 그 힘을 바로 그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 발견해낸 것과 바로 그 마주치는 어떤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소위 지

식인으로서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와 맺게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교시: 제3영역의 경험과 그 전제조건

▲ 유년시절의 경험과 제3의 영역

베를린의 유년시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식의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또 비슷한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베를린, 벤야민이 그런 그 유복한 그런 부르주아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결코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특별한, 유년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들이 벤야민에게 이후 이제 많은 부분에서 얘기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대한 경험과 만나게 되는 경험입니다.

예컨대 벤야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벤야민이 유년시절에 대해서 쓴 글이 아니라, 다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종의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다. 그 습관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벤야민이 좋아했던 그 여자가 있었죠. 라시스라고 그런 그,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런 여자인데, 하튼 그 여자를 바로 얘기하는 건데, 바로 나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면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은 뭐냐 하면 되도록 그 선물을 고르는 일을 자꾸 미룬다. 연기한다. 근데 그럴수록 바로 내가 그 선물을 고르는 일을 연기하면 할수록, 미루면 미룰수록, 그 반대에서 그 여자의 얼굴은 점점 점점 아름다운 여자로 변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벤야민식의 선물주기 습관: 미루기

그런 체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나에겐 특별한 선물주기의 습관이 있는데, 자꾸만 선물을 빨리 선택을 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되도록이면 자꾸 미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루면 미룰수록, 그 반대편에서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점점 아름다운 여자로 변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바로 그 아름다운 여자로 그 변해가고 있는, 내가 한편으론 선물을 미루고 한편에서는 미룰수록 그 여자가 그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 바로 그 부분, 그 부분을 바로 이제 벤야민이 끊임없이 매혹당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선물 받는 얘기를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에 서구에서는 그렇죠. 크리스마스 날 이제 애들이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말을 하나, 긴 양말을 하나 걸어놓고 잡니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부모들이 와서 여기도 선물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죠. 아침에 애들이 발딱 일어나가지고 무슨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나 꺼내고 그러는데. 바로 벤야민도 유년시절의 체험 중에 이 그 이 바로 선물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 긴 양말 속에 그 무엇이 들어있는지, 손을 넣어서 양말 속으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자기를 더없이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선물 자체가 아니다. 내 손이 그 선물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을 때, 양말 속을 들어가서 그 선물로 접근해가는 그 때, 그 때가 한없이 황홀했고 그리고 자기는 그 선물 무슨 선물이 이 안에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선물 자체에는 사실 그렇게 큰 기쁨을 안 느꼈고, 바로 자기 그 손이 그 선물을 향해가지고 양말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끊임없이 그 변주를 일으키면서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떠오르고 있는 선물의 모습. 그게 자기를 끊임없이 황홀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그 얘기들도 있고. 또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냐하면, 자기는 또 이제 옛날에 그 벤야민이 굉장히 그 어렸을 때 굉장히 병을 많이 앓았는데 그럼 이제 의사가 와서 하루 종일 이제 움직이지 말고 침대에 누워 있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벤야민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게 독특한 인내심이 있는 것 같다. 아주 특별한, 뭐를 잘 견디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가난한 그런 그 상황을 스스로도 생각해도 어찌면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살다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좀 뭐 반드시 뭐 결정적인 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저도 뭐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좀 본인이 대단히 좀 그 기특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냐 하면 전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거든요. 물론 아주 그냥 투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저렇게 뭐 싸움하고 막 이런 걸 별로 싫어하고,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난 훨씬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무슨 외적인 억압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 저는 이제 그만두면 말지 뭐 그 뭐 애써가지고 그걸 싸우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살아가는데 그만큼 살아오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아 뭐 대충대충 어떻게 잘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참 기특하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 벤야민의 유년시절의 이미지세계(놀이)에 대해

어 그래도 잘 살았네. 그 나 같이 이렇게 허약하고 이런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왔을까,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벤야민도 사실 그 자기가 살아온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시달리면서, 사실 벤야민 일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험난한 그런 그 일생이었을 테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면 참 그 훌륭한 점이 나한테 있는 거 같다. 그게 뭐냐면 인내심이다. 잘 참는다.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떤 곤란함, 아니면 곤혹스러움, 아니면 그런 신산스러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잘 참는다 라고 하는데, 이 인내심이라는 게 어디서 왔을까? 라고 이렇게 벤야민이 아마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유년시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자기는 그 인내심이라는 게 어렸을 때 병으로 온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 병을 많이 앓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와서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더라, 이렇게 얘길 하면 말 잘 듣는 아이였는지 이렇게 누워서 지내면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그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쓰고, 환한 낮에 이렇게 이불 뒤집어쓰면 안이 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흰하고 또 약간 그 빛이 불투명해져가지고 어떤 묘한 공간이 생기죠? 음? 그 뉘앙스로 이렇게 이 되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데, 그 안에서 누워가지고 손가락 갖고 장난했다 이겁니다. 손가락, 이 자기 손가락을 갖고 뭐 이런 모습도 만들고 저런 모습도 만들면서 자기는 그 손가락의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 이불공간 안에서 자기 손가락을 가지고 그 움직이면서 그 손가락들이 무수하게 변주를 일으키는 그 그거를 보면서 아주 그 오랜 시간을 낮 동안을 아주 그 지루한 줄을 모르고 잘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 벤야민의 아포리즘적인 문지방영역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 벤야민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년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벤야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종의 이미지 세계, 유년시절 특유의 이미지 세계. 그리고 벤야민이 바로 벤야민 사유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검해보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어떤 영역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공간 개념이 있습니다. 장소개념이 있어요. 그 장소개념을 벤야민은 바로 ‘문지방영역’이란 말로 얘기합니다. 문지방영역이라는 게 여러분 문지방도 벤야민이 그 아인반슈트라세니까 그 <일반통행로>를 보면 문지방도 영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그 하나의 그런 아포리즘인데, 문지방도 영역이다, 영역이라고 하는 것,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개념인데, 특별하게 규정될 수 있는 어떤 공간개념인데, 문지방이 과연 영역개념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지방은 우리가 어떤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공간입니까? 모든 공간은 경계를 전제로 합니다. 모든 공간은 경계를 전제로 하지요. 바로 경계가 없으면 사실은 연장밖에 없습니다. 그 널려있음밖에 없죠. 사실 그 공간개념, space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사실은 그 문명화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갖게 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 자연 그... 자연의 그런 그 공간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연장이죠. 그냥 널려있을 뿐이죠. 나뉘는 어떤 그런 그 경계선이라는 게 자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자연이라는 그런 그 연장을 바로 세계라고 하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다 경계선을 쳐야 됩니다.

이쪽 공간, 저쪽 공간, 아니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공간이라면, 그 공간은 바로, 공간의 전제는 뭐냐 하면 경계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경계. 근데 벤야민이 문지방도 영역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까?

여러분 문지방은 말하자면 어떤 영역입니까? 문지방도 영역입니까? 문지방에 경계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다시 물어보면 문지방은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네? 여기 방이 두 개가 있

는데 이렇게, 이게 문지방 건너가야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근데 이 영역은 여깁니까? 여깁니까? A라는 방에 속합니까? B라는 방에 속합니까?

▲ 파사주와 통로, 그리고 벤야민의 공간 개념

바로 벤야민이 끊임없이 머무르려고 하는 어떤 사유의 장소가 있는데, 그 사유의 장소가 벤야민에게 문지방영역입니다. 문지방영역. 문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뭘니까? 이쪽이기도 하고 저쪽이기도 하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지만 동시에 이쪽이기도 하고 저쪽이기도 하다. 이 문지방영역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벤야민이 쓰고 있는 바로 그런 그 파리 그 메트로폴리스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파사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파사주는 통로죠. 이런 통로입니다. 그죠? 이렇게 거리를 보게 되면,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한데, 바로 이 길거리에 이런 통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일로 건너다니는, 건너다니는 그런 특별한 어떤 건축양식이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벤야민이 왜 파사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물론 파사주는 19세기에 태어난 새로운 건축양식이고 그리고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건축양식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9세기에 태어났지만 20세기에 와서 완전히 폐허화된 그런 건축양식인데, 바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형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파사주는 통과지점이에요. 통과지점이죠? 바로 파사주의 특성이 뭘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동시에 이쪽이면서 동시에 저쪽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없으면 이쪽도 저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문지방영역도 마찬가지로인데, 문지방영역이 또, 문지방영역이란 게 없으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있을 수가 없지요.

벤야민이 끊임없이 사유의 그런 장소로 삼으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역사가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으로 삼으려고 하는 공간. 그 공간이 벤야민은 끊임없이 이 그 소위 문지방영역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게 나중에는 바로 파사주라고 하는 걸로 변해가고 또 우리 언어철학적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언어, 아담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또 이게 대치가 되고, 그리고 아까 아우라도 말씀하셨지만, 아우라도 바로 이미지이지만 뭘니까? 뭇과 가까움의 관계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제3의 공간입니다.

▲ 제3의 이미지 공간 개념

제3의 어떤 이미지공간입니다. 그래서 벤야민이 아무리 가까워도 먼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아우라개념과 비교해서 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상대개념을 말을 하는데, 그 트레이스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리 멀어도 가까운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아우라, 아까 아우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아우라란 걸 아주 단순하게 영화의 세계 아우라가 그냥 붕괴됐다, 무슨 뭐 기술매체가 나타나면서 붕괴된 무엇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고, 벤야민의 사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의 영역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우라라는 게. 멀지만 가까운 것, 가깝지만 먼 것. 이게 나중에 사진론에 들어가면 사진보고 사진이미지하고 나하고의 관계 양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무엇이기도 한데. 하여튼 벤야민이 끊임없이 어떤 그런 그 새로운 역사 혹은 새로운 사유 아니면 경험, 그 경험이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새로운 그런 이미지들이 태어나는 어떤 제3의 영역을 항상 지시하고, 그 영역에 들어가서 바로 사유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문지방영역이고, 그 문지방영역의 특수성은 뭐냐 하면, 바로 유년시절에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있었던 바로 이것과 저것이 아닌 제3의 영역.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선물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상대가 아름다워지는 어떤 영역. 그리고 양말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그 선물의, 선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영역으로 내게 다가오는 어떤 영역, 그리고 또 그 서구에서는 애플파이 같은 거를 겨울날 많이, 그 방에, 그 벤야민이 그런 기억도 얘기를 합니다. 방에 그 벽난로가 있고 벽난로에 겨울이면, 벽난로의 역할은 방을 따뜻하게도 해주지만 그러나 아침마다 하녀가 와가지고 이렇게 피자 굽듯이 이렇게 우리 봉어빵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런 틀처럼 거기다가 사과를 넣고 또 밀가루도 넣고 이래가지고 만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벤야민이 아침에 일어나, 어린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눈 뜨는 게 바로 그 안에서 익어가고 있는 그 사과 향기, 익어가는 그 사과 향기 냄새. 바로 그 따뜻한 열기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그 코 안으로 밀려들고 있는 어떤 사과 향기, 그 냄새, 그 냄새로서 우리가 얘기될 수 있는 어떤 영역, 그런 것들을 벤야민이 끊임없이 그 유년시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바로 그 유년시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모티브 중의 하나는 벤야민의 사유에서 끊임없이 그 지시되고 있는 제3의 경험영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최초로 경험되었던, 최초로 경험되었던, 이후에는 경험해본 바가 없는, 그래서 오로지 유년 속에서만 있는, 이제 그러한 경험의 영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경험의 전제조건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벤야민이 바로 유년시절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아름다운 영역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 순수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전제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부르주아사회다. 바로 그러한 그런 제3의 영역을 경험하게 해주는 조건은 그러나 그런 아름다움의 영역, 이미지의 영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오히려 바로 그것이 바로 저항매체로서 대항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주아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바로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회에 한 아이는 깊이 들어가 있고, 바로 그 아이는 그 부르주아 사회 속에서 깊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주아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유년에 있는 아이는, 아이는 바로 이런 억압적인 상황 속에 깊이 들어가서 꿈을 꾸지만, 그리고 꿈을 꾸면서 그 꿈에 아름다운 제3의 영역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모르는 게 있다. 어떤 걸 모르느냐 하면 자기가 꾸고 있는 그 꿈이, 사실은 부르주아 사회 속에 자기가 깊이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되

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벤야민, 그 어린아이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3교시: 근대적 시간개념과 끝나지 않은 과거

▲ 꿈과 부르주아 사회와의 관계, 부르주아 사회 비판을 통한 꿈의 실현

그러나 유년을 기억한다는 건 뭔가? 즉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 뭔가? 벤야민이 베를린의 그 유년시절을 쓰고 있는 것은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유년시절을 기억하고 자기의 유년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잘못 생각하면, 잘못하면, 바로 이걸 서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던 그런 기억다루기법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근데 마르셀 프루스트,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유년의 아름다움을 기억한다는 데 크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나 하면, 마치 지금 성인이 되어서 기억하고 있는 그 유년이 유년시절의 그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것과 일치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문제다, 벤야민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야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한 아이가 어린 벤야민이 부르주아 사회라고 하는 것이 깊이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꿀 수 있었던 어떤 꿈, 이 꿈은 어른이 되어서 보게 되면 이를 수 없는 꿈이다 이런 얘기. 꿈을 위한 꿈일 뿐이다. 왜? 이 꿈을 꾸게 하고 있는 이 조건이 이 꿈을 실현시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부르주아 비판과, 그리고 벤야민이 그 부르주아라고 하는, 부르주아 사회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사회 속에서 생산되는 꿈과를 구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꿈이 부르주아 사회 속에 들어있던 아이가 아무것도 그 사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그런 그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꾸었던 꿈이다, 라는 식으로 폐기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동시에 이것을 너무 중요시해서 부르주아 사회라고 하는 상황이 어쨌든 이 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꿈을 지나치게 평가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동시에 부르주아 사회라고 하는 그 배경 때문에 이 꿈의 가치를 폐기시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벤야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꿈과 그리고 그 꿈을 꾸게 만들면서 사실은 꿈으로만 존재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그 꿈을 실제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을 구분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갑니까?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벤야민이 가지고 있는 뉘과 가까움, 문지방영역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강의안 드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경험적으로 가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가게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벤야민을 그 텍스트 읽을 때 어려움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벤야민을 이해하는 데서 어려움도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인데, 즉 벤야민은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 낳는 건 아니다.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정적인 상황을, 상황과 전혀 다른 것을 생산해낸다, 이게 꿈이에요. 유년의 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꿈이 이 부정적

인 상황을 바로 저항할 수 있고, 이 부정적인 상황을 폐기시킬 수 있는 자체의 힘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왜? 바로 이 조건이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 꿈이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자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그거예요. 벤야민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나중에 기억한다는 일은 뭐냐? 도대체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벤야민은 이렇게 보고자 해요. 바로 우리가 이 꿈을 정말 실현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부르주아 사회와 이 꿈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양자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벤야민의 변증법적 그런 사유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벤야민에게는 유년시절이 이러한 배경이 없었더라면 이 꿈이라는 경험도 없다, 바로 이 꿈이라는 경험을 그러나 이 상황은 실현시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이나 하면 바로 이 조건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꿈을 다른 조건을 통해서 실제로 실현시키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벤야민이 바로 그 에 그 기억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져요. 한편으로는 꿈을 생산해낸 그 어 배경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또 하나는 바로 그 비판적인 상황이 바로 생산해내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을 그 비판적인 상황을 비판함으로써 실제로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벤야민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꿈이에요.

▲ 끝나지 않은 과거와 과거의 요청에 응답하기

그래서 벤야민이 나중에 희망은 과거에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벤야민에게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 개념의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과거라고 하는 것인데 그... 왜 벤야민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힘은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 속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우리가 파사젠 아르바이트를 보게 되면 이 벤야민이 그 어 이 파사주에 대해서 연구할 때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사주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태어난 건축 양식이에요. 그러나 벤야민이 파사주를 연구하는 그 시기는 20세기예요. 벤야민이 끊임없이 바로 이 그 벤야민 실제로 이 파사주하고 뭘 했던 시기에는 파사주라고 하는 것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유행의 공간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새로 태어난 유행하는 옷들 아니면 기구들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화려하게 놓여 있는, 그 상가를 이루었던 이 공간이, 그러나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를 건너오면서 이 공간 속에는 밤에는 창녀들이 있고, 그리고 밤에는 노동자들이 갈 데, 우리 지하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밤에는 노숙자들이 일하다 와서 잠자고, 낮 동안에는 그냥 옛날 골동품이나 팔고 싸구려 물건이나 팔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통로를 지나다니면서 그런 물건 사러 다니고. 그러나 벤야민이 보고 싶은 것은 겨우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오는 사이에 폐허가 되어버린다. 19세기에는 가장 새로웠던 것이, 가장 새롭고 화려했던 게 잠깐 시기가 지나면서 완전히 게토가 되어버렸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벤야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파사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이게 유년의 기억처럼 바로 19세기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이었던 어떤 공간이 그러나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20세기에서 보게 되면 뭘니까? 바로 부르주아 사회에서 꿈꾸었던 그 꿈이 바로 전혀 실현되지 않은 채로 폐기당하고 말았듯이, 이 파사주도 건축 양식적으로 보게 되면 19세기에 이것이 태어났을 때는 이 안에 투여되었던 무수한 그런 그 역사적 꿈들이 건축 공간 안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잠깐 사이에 20세기로 건너오게 되면 이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대에 이 공간 속에 투영됐던 꿈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망각되어 버린, 그래서 폐기되어버린 그런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이겁니다.

마치 유년의 꿈이 바로 성숙한 그런 벤야민에게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꿈으로 폐기된 것처럼. 유년에 꾸었던 꿈이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그것이 벤야민의 질문이고 바로 벤야민이 그 19세기, 이 파사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것은 20세기에 폐허화된, 폐허화된 그런 그 에 그 파사주가 아니라 19세기에 유산으로, 유산이었던, 19세기에 가장 화려했던 공간이었던 그 파사주예요.

바로 벤야민이 베를린의 유년시절을 기억하는 것도 지금 자기가 그 꿈을 잃어버린, 앞서 벤야민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꿈추난쟁이가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한 아이가 살아오면서 벤야민은 나중에 그 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리고 끊임, 결국은 나중에 자살까지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아주 그 비운의 지식인으로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 파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사주 공간도 19세기에 그토록 거대한 꿈들 화려한 꿈들이 있던 것들이 20세기에 왔을 때 보니까 그 꿈들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그냥 게토로 변해버리게 되었다. 벤야민, 벤야민이 바로 그 사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왜 그때 꾸었던 그 꿈이 실현될 수 없는가, 이겁니다. 나아가서는 그 꿈이 정말 실현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꿈은 지금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바로 이 유년시절의 부르주아의 그런 그 어 감옥 속에서 꿈꾸었던 그 꿈이 그 부르주아 사회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없어지는 그런 힘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꿈은 따로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바로 그 꿈꾸었던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에게 혹은 꿈 꾸, 꿈을 잃어버린 성장한 어른에게 그 꿈을 실현시키려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이겁니다.

바로 파사주라고 하는 건축 공간은 지금도 20세기에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폐허가 된 파사주를 응시하고 있는 벤야민에게 19세기에 나에게 있었던 꿈을 실현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이겁니다. 만일 그 꿈을 실현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꿈은 지금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벤야민의 역사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벤야민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길 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벤야민은 이렇게 얘길 합니다. 과거 속에는 바로 그 하나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욕망이 들어있다. 그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그 과거 속에 실현되지 않은 채로 잠재하고 있는 어떤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아까 제가 꿈추난쟁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꿈추난쟁이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좀 봐달라고 눈 맞춰 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난 한 번도 그들을 보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스스로 꿈추난쟁이가 되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벤야민은 그렇게 역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속에는, 과거는 끝난 게 아니다, 과거 속에는 잠재된 욕망이 있고 실현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욕망들이 아직까지 그 안에 있다. 다만 그것이 끊임없이 바로 현재 우리들에게 나, 나의 욕망을 실현해달라고, 나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혹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어떠한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이데올로기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기이고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 있는 것이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주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라고 하는 것에 들려오는 소리를 귀 막고 있다, 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그거를 듣는다면, 바로 과거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잠재된 욕망을 오늘에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겁니다. 바로 이것이 벤야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에 과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벤야민이 이렇게 얘길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허약한 존재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 하면, 바로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당하고 있는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죠.

벤야민은 그렇게 얘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현재라고 하는 것, 그 벤야민이 그 역사철학 테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희미하기는 하지만 메시아적인 힘이 내재하고 있다. 왜? 과거에 있는, 과거 속에 잠재된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다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듣고 대답하면 우리는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 요청에 대해서 답할 수 없으면 우리는 다만 그 메시아적인 그런 그 힘이, 그 힘을 미래라고 하는 것에서만 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미래 지향적인 그런 걸로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길 합니다.

좀 쉽게 얘길하면 이렇게 얘길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좀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벤야민이 역사철학테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얘길 해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 라고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러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다. 즉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대상 혹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에...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에... 그 내용은 미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미래에 있는 행복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게 현재의 의미다. 사실 우리 전부 그렇게 살

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미루죠, 그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은 참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해보면, 현재?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를 끊임없이 미루고 있죠.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복을 미래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바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적 시간관을 사실 얘기를 해야지만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미래 쪽으로 연기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근대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벤야민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만, 우리에게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미래에 대해서 전혀 질투를 하지 않는 어떠한 힘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즉 미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심층적인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길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를 응시해보면, 과거를 응시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언제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인가? 예컨대 미래에 만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행복의 대상이 있으면 그거를 추구하면서 더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과거 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나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도 있었던 어떤 여자 혹은 남자, 그러나, 그러나 어떤 상황 때문에 헤어진 어떠한 남자 여자, 사랑하는 사람. 네? 어쩌면 나하고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었던 어떤 친구 혹은 어쩌면 내가 미래에 무엇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쩌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겼던 어떤 인형 하나, 예컨대 유년시절 들여다보면.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 보게 되면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는 어떠한 것.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된다면, 다시 옛날 그 사람을 만나서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 그리고 바로 어떠한 그런 그 어떠한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행복을 미래에서 구하기 때문인데, 그 미래의 행복이란 이유로 우리가 형제처럼 지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작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어떤 사람, 그 사람과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만일 있다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정말 추구하게 될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떠실 거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캐리어 우먼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저마다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미래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목적을 실현시킬 수, 실현시키면 그 어... 실현시켜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저 멀리에 있습니다. 네?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행복이 우리를 정말 우리를 몸 떨리게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아니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행복을 미래에서 찾다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행복으로 가는 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버린 어떠한 사람, 그 사람하고 지금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때 어쩌면 우리가 중단시켜놓은 그런 사랑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이 정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관 자체가 아무리 정말이라고 얘기해도 정말이라고 믿질 않으니까.

죽은 사람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까? 왔으면 좋겠다. 올 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 우리 안 믿 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나 벤야민은 죽은 사람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우리가 그걸 믿질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의 사유는 시간을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게 사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관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우리의 사유도 그 시간관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결코 바로 시간관 자체가 역류하지 않는 한, 우리 사유도 진정으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추억만 하죠. 아, 그때 참 좋았어.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추억만 하지 과거의 실현되지 못했던 어떠한 것,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어떤 것은 항상 추억의 대상이지 지금 이 현재 내가 다시 누릴 수 있는 실재는 절대로 아니에요.

◆4교시: 벤야민의 변증법적 사유방식과 제3의 영역

▲ 과거 접근의 아이러니

그것이 바로 벤야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이데올로기에 대한 언술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때가 어떤 것이 더 우리를 정말 몸 떨리게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것을 미래에 얻으면 나도 물론 몸 떨리겠죠. 그 행복이 더 강력한 행복을 나에게 줄 거 같습니까, 아니면 작별했던 어떠한 것들을 다시 정말 되돌려서 그것 속으로 그것과 내가 다시 만나게 되면 바로 내가 더 행복할 거 같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얘기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만일 우리가 벤야민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일 미래에 대한 행복이 더 나를 몸 떨리게 할 거예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전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어떠한 시간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벤야민은 이런 식으로 얘길 하죠. 만일 정말 우리가 과거에 잠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오늘날 실현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랍비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맨날 랍비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얘기를 하니까 랍비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도대체 만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오게 되면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랍비가 얘기하기를, 아무 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지금하고 똑같다, 그러나 모든 게 달라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경험 불가능하다. 왜?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게 알게 되는 바로 그것이니깐. 실제로 되지 않는 한은 결코 경험할 수 없고, 결코 믿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야민도 얘기하고, 벤야민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을 지금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아무리 과거를 그리워해도 과거 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어떤 그런 실현의 파워를 결코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벤야민이 가지고 있는 사유와 실천이 겹쳐지는 겁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바로 여기서 그것을 공간적인 영역으로 하게 되면 바로 이 영역입니다(문지방영역). 사유 영역이 바로 여깁니다. 과거이기도 현재이기도 한 이 영역.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과거가 우리 현재가 되지 않으면 우린 과거를 결코 믿지 못해요. 추억으로만 여기게 되지요. 동시에 과거 쪽에서, 과거 쪽에서 끊임없이 현재 쪽으로 밀려오고 있지 않으면 현재가 결코 과거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3의 영역

이 있다. 현재하고 과거 사이에는 제3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벤야민에게는 바로 우리가 실제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영역 속에 우리가 정말 경험적으로 그 안에 실재할 수 있다면, 아까 랍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도 변하지 않지만 모든 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벤야민이 이 과거 속에 희망이 있다, 미래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 희망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그 과거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속에 무슨 희망이 잠재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발견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가 귀를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직결되는 거다. 과거 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현재가 귀를 막고 있으면 결코 그 과거는 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또 현재는 그 과거에 의해서 변할 수도 없다.

그래서 벤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메시아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앞을 지나간다.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벤야민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앞으로 메시아가 끊임없이 지나간다, 다만 우리가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알아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애깁니다. 알아봐야 붙잡는데 알아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애깁니다.

메시아는 결코 미래에서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만날 지나가고 있는 게 메시아다. 다만 우리가 눈을 뜨면 눈을 감고 있는 한도에서는, 한에서는 그 매일 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지나가고 있는 그런 희망 혹은 구원 그러한 그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바로 그 붙잡아낼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애길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왜? 현재는 결코 과거를 실재라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믿고자 해도 이미 그 믿음 자체가 과거라고 하는 개념에 바로 묶여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추억이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다. 즉 멜랑콜리다, 이렇게 얘기 합니다. 즉 실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그리워하는 일. 네? 그래서 소망 상으로만 남는 일, 그게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벤야민의 기억방식 아인게덴켄을 통한 시간의 이분법 해소와 제3영역으로의 접근

그러나 벤야민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다르게 독일어에서만 쓰고 있는 다른 그 다른 류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사실은 없는 말인데, 아인게덴켄(Eingedenke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억, 추억 뭐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벤야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이 영역, 이 제3의 영역을 바로 기억하는 그런 특별한 기억 작용을 아인게덴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 그 게덴켄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기억의 대상이 이미 과거라는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덴켄은 독일어로 사유한다, to think인데 그러나 ge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과거 어미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걸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어미가 ein이라고 하는 게 붙게 되면,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게 되면 바로 이 그 과거를 생

각하지만 과거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기라고 하는 말이 같이 달라붙으면서 이게 묘한 어떤 그런 그 기억의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를 적극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현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억작용 속에는 바로 벤야민이 현재와 과거라고 하는 두 그 시간의 이분법을 해소시키는 어떤 기억방식. 그게 바로 벤야민에게는 아인게텐켄이라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 아인게텐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주하고 그리고 접근하고자 하는 영역이 바로 이 또 제3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 이것 또한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영역. 바로 시간영역인데, 바로 그 영역에 대한 기억, 기억하기. 그게 바로 벤야민에게는 아인게텐켄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러한 그 기억개념으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바로 벤야민, 그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베를린의 유년시절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앞으로 이제 언어철학이든 뭐 매체 얘기든 아니면 도시든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제 나름대로 벤야민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영역에 대해서 계속 접근을 해 들어갈 건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얘기할 때 언어로 접근해갈 수 있는 중심 영역이 있고 그 거기를 별들처럼 맴돌고 있는 여러 가지 시니피앙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우라이기도 하고, 미메시스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기억이기도 하고, 알레고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담의 언어라고 하는 영역도 되고, 또는 파사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계속 이렇게 그 행성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영역은, 가운데 있는 영역은 바로 우리가 제3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아인게텐켄이라고 하는 기억방식을 통해서만 접근해갈 수 있는, 그리고 비의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바로 그 영역을 항상 가운데 두고 모든 그 벤야민의 사유는 이렇게 에... 그 주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위 벤야민을 우리가 인식, 그 저기 뭐야 그 인식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진리를 우리가 그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역과 만나는 이제 그러한 어..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벤야민의 여러 그 사유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역사철학 속으로 또는 매체철학적으로 아니면 언어철학적으로, 특히 예술론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 변증법적인 사유운동과 빌트

제가 오늘 베를린의 그러한 그 유년시절에 대해 특별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는 바로 벤야민 사유의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되고 있는 바로 이... 경험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좀 접근가능성을 좀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바로, 아 벤야민 사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그 시공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유구나. 형식논리적으로 다가갈 수도 없고, 그리고 단순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런 환상적인 방식으로만 다가갈 수도 없고, 바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리고 이쪽이기도 하고 저쪽이기도 한,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닌, 과

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한, 바로 아우라식으로 애길 하면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또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벤야민의 그 말이 만일 우리가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면 특별한 하나의 이미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변증법적 이미지입니다.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이질적인 운동, 그런 속성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사유운동 이죠.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그런 확일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형식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사유운동이 A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와 더불어서 B라고 하는, 예컨대 우리 음악학적으로 얘기하면 콘트라퐁크트적인, 대위법적인, 서로 다른 것이 같이 움직여나가는 이제 그러한 그 운동을 우리가 변증법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변증법적 운동이, 변증법적 운동이 정지되는 순간이 있다. 정지되는 순간이 있다. 정지되는 순간에 특별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사실 이마주나 이미지하곤 좀 다른 거예요. 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독일어로 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순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미지가 있는데,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바로 이 영역을 바로 경험할 때 나오는 그러한 형상이다. 이 형상은 시간의 형상이기도 해요.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동시에 공간의 어떤 형상이기도 해요. 이쪽이기도 하고 저쪽이기도 하는 점에서 보게 되면. 동시에 바로 어떤 거리의, 거리의 개념이기도 해요.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다는 점에서. 바로 그러한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벤야민의 철학 속에서 가장 어렵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소위 변증법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벤야민의 변증법적 이미지 혹은 그 저 디알렉틱, 디알렉틱 인 스틸스탠드라고 그래서 정지상태의 그런 변증법. 뭐 이런 말로 얘기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이 뭘 애길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벤야민의 사유를 계속 관통해나가고 있는 아리아드네의 끈이 있다면, 스스로 문지방영역이라고 불렀던 이 문지방영역에 대한 바로 그 부분이라고 우리는 일단 전제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벤야민의 여러 다른 그런 그 영역들을 이제 통과해보는 일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 벤야민의 지적 태도

벤야민은 사실 19세기 베를린의 유년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벤야민의 그 테스트아멘트, 그니까 유연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벤야민이 바로 그동안 쪽 써오긴 했지만 그러나 단편적으로 썼던 것들을 전부 모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에 편집본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스페인 그쪽으로 떠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에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에서 거의 그 텍스트의 그런 내용으로는 안 드러나 있지만 바로 그 텍스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 태도, 쓰는 사람의 태도를 읽어보면 거기에 바로 이 테스트아멘트를 쓰는 듯한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바로 19세기 베를린의 유년시절이라고 하는 짧은 책,

짧지만 벤야민의 텍스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텍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 문학인데. 그래서 바로 그 텍스트를 바로 죽기 직전, 자기가 그 파리를 탈출하기 이전에, 이전에 남겨놓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또 어 사실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벤야민은 뭐 그 주변에 있었던 당대의 그 벤야민과 교류를 했던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이미 그 벤야민은 에 가다가 그 파리를 그 탈출하다가 안 되면 죽을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또 벤야민은 어찌면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살아온 게 항상 뭐가 안 됐다 이거지. 내가 살아온 게 아까 꿈추난쟁이가 그랬듯이 항상 안 됐다. 빗나갔어. 그러면서 벤야민이 그래요.

그래서 벤야민은 왼손잡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왼손잡이 얘기. 그러면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벤야민이 볼 때 세계는 오른손잡이들의 세계인데 자기는 왼손잡이다. 그니까 늘 오른손잡이의 그 세계 속에서 왼손잡이의 역할이란 게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도태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말을 하죠.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모든 혁명은 왼손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성찰의 태도가 참 그...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굴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자화자찬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어떤 그런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특히 부르주아 지식인, 벤야민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그런 문제의식 중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니까 뭐냐 하면, 나는 부르주아 출신이다.

앞서 베를린의 유년시절에 얘기를 한 것처럼, 나는 모순 된, 이 역사를 왜곡시킨 바로 그 핵심적인 영역에서 나는 태어났다. 한마디로 하면 반동이에요. 난 반동출신이다. 그런데 그 반동출신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역사적인 모순이 있다, 이거죠. 프로레타리아는 알지 못하는. 그게 바로 벤야민의 그런 엘리트의 자기 자기적인 얘기에요. 그러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과연 뿌리가 부르주아적인 지식인이 정말 프로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역사에 대해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게 바로 그 문제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벤야민이. 즉 부르주아의 그 출신인 지식인이 바로 그 부르주아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혁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자기 성찰이죠. 그 지식인의 자기 성찰. 아주 뿌리 깊은 자기성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바로 끊임없이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사유체계에 대해서 부르주아적인 뿌리가 있는 그 사유체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린 벤야민이 교양화되는 과정이 부르주아 사회에서 교양화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왔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자기 사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려고 하는, 그런 거로 해가지고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그 자의식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그 어 요청하는, 스스로 요청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반면, 반면 또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 입지가 어떤 그러한지적인 뿌리가 바로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어떤 그 뇌관을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벤야민의 사유 속에 깊이 내재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어찌면 바로 이런 제3의 영역을 추구하고 바로 그 이 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제3의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사유의 그런 궤적과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부분들도 또한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부분들이 벤야민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사유의 단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들을 앞으로 이제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접근 방식은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벤야민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이해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대단히 실증주의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벤야민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비의적이다, 즉 태고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감각체계, 그 체계를 근대에서 또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당신은 변증법적인 공부를 좀 더 더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지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은 바로 벤야민은 비의적인 경험, 시적인 경험으로 역사를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마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보니까 오늘 뭐 프린트는 나눠드렸는데 하나도 보질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차피 제가 예 다음 시간에 이 역사철학 테제를 가지고 좀 시간을 보낼 생각이 있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역사철학 테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